

# 동아시아에 전주 관광매력 홍보

### 시, 20일~23일 타이완 가오슝 국제관광전 참가...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 모색

전주시가 타이완 가오슝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타이완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타이완 남부 최대 도시인 가오슝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현지 주요 여행업체와 소비자, 관광기관 등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지역 맞춤형 상품개발 및 전주관광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오슝 관광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가오슝 국제관광전은 타이완 남부지역에서 열리는 최대의 여행박람회로 다양한 나라의 여행상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정보를 얻으려는 약 30

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KTO)가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입국객 수는 2015년 51만명, 2016년 83만명, 2017년 9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유여행객(FTT)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가오슝 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기구) 및 거제시, 군산시, 부산시, 인천시, 통영시 등 10개 TPO 회원도시와 함께 TPO 관광교역전을 열고 전주 관광홍보관 운영과 현지 아

우비운드 여행사 및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벌이는 등 타이완과 동아시아지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공중홍보관 내에 전주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현지 여행사를 배치하여 타이완 관광객의 실질적인 전주 방문 효과를 유도하고 동아시아지역 관광시장의 판로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TPO 공동회장도시로서 이번 가오슝 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타이완 관광객 및 여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와 테마여행 10선 시간 여행상품, 개별관광객을 위한 전주

여행상품을 알리고 TPO 회원도시 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활성화 방안 논의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최근 중국관광객 감소의 대안으로 급성장한 타이완 관광시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 시장을 공략하는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여 해외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지속적인 개발 홍보 할 예정."이라며 "전주의 대표적 관광명소, 전통문화와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전주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여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차 없이 출근·10분간 소등 동참해요'

### 기후변화주간, 19일 전주시 공무원 차없이 출근하기 22일 지구의 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5개소 소등행사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전주시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전주시는 '제10회 기후변화주간'(18일~24일)과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일반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참여 행사를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주차장을 통해, 공무원들이 대상으로 '일 차 없이 출근하

기'를 진행한다.

이번 차 없이 출근하기 행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에는 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저탄소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는 전국적인 소등행사에 참여한다.

이날 소등행사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시청사와 완산구청사, 덕진구청사, 효자동 홍산교, 여의동 호남제일문 등 전주지역 주요 상징물과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 각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다.

/기동취재반

## 중·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전주시가 공장견학과 현장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20여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18일 부안 (주)참프레 공장에서 '제4회 중·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생산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50여명과 함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업체의 공장을 직접 견학하고 현장면접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참프레 협력업체이자 닭고기 가공·제조업체인 (주)아람이 참여했다.

이 업체는 이날 현장면접을 통해 20명을 채용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울 들레 네 번째 행사로 구직자들이 생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되는 공정을 견학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구인업체에 대한 신뢰감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면접 행사는 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입사 초기 이직 방지 및 취업 취약계층들이 직접 업체로 찾아가는 구직비용 절감과 생산 현장 확인을 통한 명확한 구직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부안 (주)참프레 공장견학 및 현장면접 행사를 매년 2회 이상 5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는 총 2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전체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90명이 채용됐다.

/기동취재반



강제집행 진행되는 익산응포관광개발 전주지방법원이 익산응포관광개발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리면서 18일 응포관광개발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 전주 술집서 난동 부린 2명 체포영장 신청

### A씨 등 7명, 부수고 폭행... 술집 주인 B씨도 맞서 흥기 휘둘러 영장

지난 17일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용의자 2명에게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술집 주인 B(26)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 17일 오전 3시20분께 전주시 서신동

B씨의 술집에 돌기를 들고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맞서는 과정에서 흥기를 휘둘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기를 부수는 과정에서 B씨가 흥기를 들고 막아서자 이를 제압하고 폭행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 했을 때는 이들이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피해

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추적하고 있다. 또 나머지 일당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상황에 비취 단순 시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직폭력 연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와 B씨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 전주시 청년상상놀이터 운영 본격화

### 26일까지 13명 요식업 청년 예비창업가 모집

요식업 창업에 꿈꾸는 전주시 청년들은 병무청오거리 인근에 마련된 청년상상놀이터 공유주방에서 조리법을 연구하고 전문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상상놀이터 앞 옛 노송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청년협업작업과 청년정책 홍보, 창업 아이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총 13명의 청년 예비창업가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상상놀이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3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상상놀이터는 초기청년창업가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총 7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1층 청년공유주방인 '청년토랑'을 요식업 예비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사전 연습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해 아이템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선발된 3명의 청년세프들은 각각 3개월 동안 별도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건물 2층 공간에서는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3층 공동창업지원실은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활동과 사무운영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창업공간과 사무기기를 갖추고 있는 공유공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상상놀이터 앞 노송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신축 이전 됨에 따라, 기존 승강장은 청년협업작업과 청년정책 홍보, 창업 아이템 홍보 마케팅 지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단장에 나섰다.

시는 청년상상놀이터의 경우 청년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핵심인 만큼 운영관련 사항은 입주 청년 창업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 완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5월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는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완산구 소재 6만6137필

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고,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onbuk.go.kr/land-info>)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동취재반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